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1, Vol. 30, No. 4, 985-1002

초기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 하위유형의 특성 탐색: 사회평가불안과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을 중심으로*

한 영 경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 은 정†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초기청소년기의 관계적 공격성과 그 하위유형(반응적, 주도적)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중학생 410명을 대상으로 사회평가불안과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이 관계적 공격성의 하위유형에 주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여학생의 경우 사회평가불안은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에,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은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에 특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사회평가불안은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는 경향성이 나타났지만,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은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적 공격성의 하위유형이 서로 다른 세부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성별에 따라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의 향후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주요어 :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사회평가불안,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

---

* 본 연구는 '九元장학재단'의 연구비 지원(2007)에 의해 수행되었음.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 학위논문 중 일부를 발췌 및 보완한 것으로, 일부 내용은 2008년 한국임상심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은정 /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번지
Fax : 031-219-2195 / Tel : 031-219-2737 / E-mail : kej@ajou.ac.kr

www.kci.go.kr

청소년기의 공격성은 학교폭력, 집단따돌림이나 왕따와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하며, 안정적으로 지속되어 성인기의 폭력이나 범죄로 더 확대될 수 있다(Loeber, 1982; Olweus, 1979; Vaillancourt, Brendgen, Boivin, & Tremblay, 2003). 또한 여러 종단연구들에서 공격성이 광범위한 부정적인 개인적, 대인관계적 결과에 대한 잘 알려진 예측변인 중 하나라고 나타났다(Connor, 2004).

이에 따라 공격성의 발달 과정, 공격성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공격성에 대한 분류도 다양하였다(Dodge & Coie, 1987; Frodi, Macaulay, & Thome, 1977). 그러나 초기의 공격성 관련 연구들 대부분은 때리거나 미는 등의 신체적 공격이나 욕을 하는 등의 언어적 공격행동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남아들의 또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점에서 주요한 한계점이 있다(Crick, 1995; Crick, Grotpeter, & Bigbee, 2002).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형적으로 여아들의 또래 상호작용에서 더 나타날 수 있는 공격성 유형인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이라는 개념(Crick, 1995; Crick & Grotpeter, 1995)이 제시되었다. 관계적 공격성은 외현적 공격성과 다르게, 관계를 손상시키는 행동이나 관계손상에 대한 위협이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즉, 또래 관계를 통제하거나 손상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뒷말하기, 소문 퍼뜨리기, 우정관계 조작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한다(Crick & Grotpeter, 1995). 198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Wolke, Woods, Bloomfield와 Karstadt (2000)의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 가해자의 비율이 1.1%이고, 37.9%가 피해자이며, 5.9%가 가해/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적 공격성과 외현적 공격성으로 나누어진 공격성의 구분에 더해서 Little, Henrich, Jones와 Hawley(2003)는 기존에 공격성을 나누던 기준인 반응적, 주도적인 방식을 도입하여 4가지 요인(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으로 이루어진 공격성의 차원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개발한 측정도구는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문항의 표현이 제한적이었다(Marsee et al., 2007).

따라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연구자들이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을 표현하는 어휘를 다양하게 한 4가지 차원의 공격성 척도인 또래 갈등 척도(Peer Conflict Scale: Marsee, Kimonis, & Frick, 2004)를 제작하였다. 이들은 공격적 행동의 특성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평가하여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도왔다.

이 4가지 차원의 공격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이란, 대인 상호작용에서 관계를 손상시키거나 관계손상에 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인데, 지각된 위협이나 도발 상황에 반응하는 기제를 가진다.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도 대인 상호작용에서 관계를 매개로 한 공격 행동이지만, 그 기제는 타인에 대한 지배 등의 특정한 보상을 위해 하는 것으로 목표지향적인 특징을 가진다.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이란, 때리거나 미는 등의 신체적 공격이나 욕하기 같은 언어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그 기저에는 지각된 위협이나 도발과 관련이 있다.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도 직접적인 공격 행동과 관련이 나타나나, 그 기저에 특정한 목표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적 공격성의 개념이 제시된 이후 많은

www.kci.go.kr

연구들에서 관계적 공격성이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준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Crick, 1996; Crick & Grotpeter, 1995).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아동들은 외현적으로 공격적인 아동들과 비슷한 정도로 적응적 어려움에 대한 위험들 즉, 높은 수준의 또래 거부, 외로움, 우울, 소외, 친구관계 문제, 외현적 문제 등이 나타났다(Crick, 1995; Crick & Bigbee, 1998; Crick & Grotpeter, 1995; Crick, Grotpeter et al., 2002). 또한, 관계적 공격성의 대상이 되는 유아, 아동 및 청소년들에서도 또래 거부, 내현화 문제, 외현적 문제와 같은 심리사회적 부적응과 관련된 문제들이 공존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Crick, Casas, & Nelson, 2002; Crick & Nelson, 2002). 특히, 관계적 공격 행동의 피해자는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우울이나 불안 같은 심리적 괴로움을 경험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고, 심한 경우 자살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Owens, Slee, & Shute, 2000).

최근의 연구들에서 관계적 공격성에 특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회평가불안이 대두되고 있다(Loudin, Loukas, & Robinson, 2003; Loukas, Paulos, & Robinson, 2005; Marsee, Weems, & Taylor, 2008). 사회평가불안이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Kashdan & Herbert, 2001).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사회평가불안이 관계적 공격성의 발현을 촉진시키고, 조망수용 수준이 관계적 공격성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Loudin et al., 2003). Loukas 등(2005)은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계적 공격성의 일면으로 볼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이용한 공격성 및 외현적 공격성의 증가에 사회평가불안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사회평가불안은 관계적 공격성을 증가시키며, 외현적 공격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Marsee 등(2008)은 불안이 사회적 염려를 통해 특히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줌을 확인하였다.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 즉, 과도한 인정 추구 경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정에 대한 욕구는 오히려 공격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 공격성의 선행 요인일 것이라는 가정은 다소 의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다루었던 외현적 형태의 공격성이 아닌 은밀한 형태의 공격성의 경우에 이런 공격성과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과의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인정추구와 공격성 간의 관련성을 알아본 초기 연구로는 Larsen, Martin, Ettinger와 Nelson(1976)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인정추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자신에게 좌절감을 경험하게 한 사람에 대해 공격성을 표현할 때, 자신이 표현하는 공격성으로 인해 받게 될 사회적 대가가 낮을 대상에게만 공격성을 보였다. 그렇지만 인정추구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두 조건에서 비슷한 수준의 공격성을 나타냈다(Larsen et al., 1976). 지금까지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는 없었지만, 관계적 공격성의 개념과 비슷하게 또래 관계에서의 공격성을 보여주는 집단따돌림에 관한 한 연구에서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과 집단따돌림 행동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최은숙, 채준호, 2000).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이 사회적 관계를 의식하는 공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충동적으로 반

www.kci.go.kr

응하기보다는 계획적이고 주도적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준다.

관계적 공격성을 포함한 비신체적 형태의 공격성은 중학교 시기인 초기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나며(Cairns, Cairns, Neckerman, Ferguson, & Gariepy, 1989), 이 시기에 학교 내에서의 괴롭힘이 많은 것(Scheithauer, Hayer, Peterman, & Jugert, 2006)으로 나타난다. 또한, 최근 Werner와 Hill(2010)의 연구에서는 중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에 관계적 공격성에 대해 더 관대해진다는 결과가 있었다. 우리나라 학생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처음으로 다른 학생을 따돌림 한 경험이 초등학교(29.0%)보다 중학교(37.1%)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되었다(이춘재, 곽금주, 2000). 그렇지만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거나(김지현, 박경자, 2006; Ostrov & Crick, 2006),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한 경우에는 상관관계 위주로 알아본 한계점이 있었다(박민정, 최보가, 2004; 이진솔, 2007).

성별에 따른 관계적 공격성 수준 차이에 대해서는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관계적인 형태의 공격성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다(Crick, 1996; Crick & Grotpeter, 1995; Ostrov & Keating, 2004).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이나 사회평가불안과 같은 인지적 요인들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성별 간 비교를 한 연구는 최근 몇 년간 드물게 진행되었다. Marsee 등(2008)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불안 수준이 높은 남아 집단이 불안 수준이 낮은 남아 집단이나 모든 여아 집단 보다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수준이 더 높았다. 관계적 공격성의 발현 빈도는 여아가 더 높을 수 있으나, 발현하는 기제는 성별에 따라 다른 성격을 띠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기의 발달에 관계적 공격성이 미치는 유해한 면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발생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공격성을 평가할 때 외현적 공격성만으로 한정짓거나 혹은 관계적 공격성과 외현적 공격성을 구분해서 포함시키는 데 그쳤던 것이 대부분이며, 관계적 공격성의 세부유형(주도적, 반응적) 각각에 대해 발생기제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사회평가불안을 비롯해 집단 따돌림 가해 경향성과 관련이 있는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이 관계적 공격성의 세부유형(주도적, 반응적)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에 비해 관계적 공격성을 더 많이 사용하며, 발현 기제가 다른 성격을 띤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Campbell & Muncer, 2008; Crick & Grotpeter, 1995; Marsee et al., 2008; Phillipsen, Deptula, & Cohen, 1999). 본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라 각 요인이 주는 영향이 다른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사회평가불안과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은 관계적 공격성의 하위유형과 차별적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세부적으로, 첫째, 사회평가불안은 특히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둘째,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은 특히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www.kci.go.kr

방 법

연구 대상

지방 소재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437명이 연구에 참가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 중 결측치가 많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410명(남 168명, 여 24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전체 참가자들 평균 연령은 14.49세(표준편차 .52세)였고,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측정도구

또래갈등척도 (Peer Conflict Scale, PCS)

이 척도는 Marsee, Kimonis와 Frick(2004)이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에 관계적, 외현적 공격성 차원을 포함시켜 모두 측정할 수 있도록 보완한 자기-보고형 또래갈등척도를 본 연구에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안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척도의 원문항 40개를 본 연구자와 임상심리학 전공 교수가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공동번역하였다. 번역본은 영어와 한국어를 병용하는 학부생과 미국에서 유학 중인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대학원생 등 2명이 역번역하였다. 그 후, 원 척도와 역번역 척도의 내용을 각각 영어를 원어로 사용하는 미국 대학의 학부 졸업 예정생 2명이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와 임상심리학 전공교수가 함께 재검토한 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0문항으로 4점 Likert형 척도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Marsee와 Frick(2007)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전체 외현적 공격성 .90, 전체 관계적 공격성 .87,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 .87,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 .82,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80,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7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전체 외현적 공격성 .90, 전체 관계적 공격성 .88,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 .87,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 .80,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80,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76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단축형 (Fear of Negative Evaluation-Brief, Brief FNE)

이 척도는 Leary(1983a)가 제작한 12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로, 단일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분포는 12점에서 6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많음을 나타낸다. 한국어판은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를 하였으며, 역시 총 12문항,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생 집단과 일반인 집단, 사회공포증 환자 집단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각 .90, .90, .89 이었으며, 반분신뢰도계수는 .86, .92, .93으로 나타났다(이정윤, 최정훈, 1997).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6이었다.

역기능적 신념검사 단축판(Short version of the Dysfunctional Beliefs Test)

이 척도는 원래 사회불안 및 사회공포증과 관련한 역기능적 신념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조용래와 원호택(1999)이 개발한 70문항으로 이루어진 역기능적 신념검사를 36개 문항으로 단축한 자기 보고형 검사이다(홍세희, 조용래, 2006). 각 문항은 리커트형 6점 척도(1: 아주 일치하지 않는다 ~ 6: 아주 일치한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위요인은 사회적 자기에 대한 부정적 개념,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

www.kci.go.kr

한 요망, 타인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과 영향이 있을 것으로 가정되는 요인인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에 해당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양주경(2007)의 연구에서는 각 요인 별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가 각 요인 별 .92, .85, .85로 나타나, 역기능적 신념검사가 청소년 집단에서도 신뢰로운 척도임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 요인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7이었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주요 변인들에서 남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균점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표 1). 그 결과, 외현적 공격성 수준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다, $t(408)=2.63$, $p<.05$. 반면,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t(408)=-2.17$, $p<.01$. 이러한 성차를 고려하여 이후의 분석들에서는 전체 집단 뿐 아니라 남녀 각 집단도 구분해서 주요 요인들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 집단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성차가 두드러지지는 않았으나, 성차가 드러난 선행 연구가 많고, 변인들이 주는 영향의 성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상관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은 표 2에 제시하였으며, 남학생 집단에서의 상관은 표 3에, 여학생 집단에서의 상관은 표 4에 따로 제시하였다. 우선 전체 집단의 상관을 보면, 전체 공격성 점수는 모든 공격성의 하위유형과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점수도 각각에 포함되는 하위유형과

표 1.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전체	남	여	성차 (t)
공격성	.32(.31)	.34(.32)	.31(.29)	1.19
반응적 외현적	.41(.48)	.49(.50)	.37(.45)	2.47*
주도적 외현적	.20(.29)	.24(.31)	.17(.27)	2.40*
반응적 관계적	.38(.36)	.36(.37)	.40(.36)	-1.11
주도적 관계적	.28(.29)	.29(.32)	.29(.27)	-.05
외현적	.30(.35)	.36(.37)	.27(.34)	2.63*
관계적	.33(.31)	.32(.33)	.34(.29)	-.68
사회평가불안	3.26(.69)	3.18(.70)	3.31(.68)	-1.98
과도한 인정요망	3.61(.88)	3.50(.98)	3.69(.79)	-2.17**

* $p<.05$, ** $p<.01$, ( )안은 표준편차.

www.kci.go.kr

표 2. 전체 집단의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1	2	3	4	5	6	7	8
1. 공격성								
2. 반응적외현적	.87***							
3. 주도적외현적	.86***	.72***						
4. 반응적관계적	.85***	.59***	.59***					
5. 주도적관계적	.86***	.56***	.70***	.79***				
6. 외현적	.93***	.96***	.89***	.63***	.66***			
7. 관계적	.90***	.61***	.68***	.96***	.93***	.68***		
8. 사회평가불안	.15**	.05	.09	.25***	.13**	.07	.21***	
9. 과도한 인정요망	.21***	.13**	.16**	.25***	.19***	.15**	.24***	.62***

* p<.05, ** p<.01, *** p<.001

보다 높은 상관을 보였다. 사회평가불안은 관계적 공격성, 그 하위유형들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 전체 관계적 공격성 r =.21, p<.001,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r =.25, p<.001,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r =.13, p<.01, 을 보이지만, 외현적 공격성, 그 하위유형과의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은 모든 주요변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공격성 중에서는 외현적 공격성 유형, 전체 외현적 공격성 r =.15, p<.01,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 r =.13, p<.01,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 r =.16, p<.01, 보다 관계적 공격성 유형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전체 관계적 공격성 r =.24, p<.001,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r =.25, p<.001,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r =.19, p<.001. 사회평가불안과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도 서로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62, p<.001.

요컨대, 남녀 중학생 전체 집단에서 사회평가불안은 관계적 공격성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은 두 유형의 공격성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만 관계적 공격성과 보다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남학생 집단의 주요변인들의 상관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전체 공격성과 그 하위유형의 상관은 모두 정적 상관을 보이며,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의 하위유형이 각 상위개념의 공격성과 보다 높은 상관을 보여 전체 집단과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전체 집단과 마찬가지로 사회평가불안은 외현적 공격성과의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전체 외현적 공격성 r =.09, *ns.*,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 r =.05, *ns.*,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 r =.14, *ns.*, 관계적 공격성과의 상관도 유의미하지 않거나(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상관계수가 낮게 나타났다, 전체 관계적 공격성 r =.16, p<.05,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r =.19, p<.05,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r =.10, *ns.*.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은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과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에서 높지는 않지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 r =.19,

www.kci.go.kr

표 3. 남학생 집단의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1	2	3	4	5	6	7	8
1. 공격성								
2. 반응적외현적	.83***							
3. 주도적외현적	.90***	.67***						
4. 반응적관계적	.86***	.52***	.71***					
5. 주도적관계적	.87***	.52***	.76***	.83***				
6. 외현적	.93***	.95***	.87***	.64***	.67***			
7. 관계적	.91***	.54***	.77***	.96***	.95***	.68***		
8. 사회평가불안	.13	.05	.14	.19*	.10	.09	.16*	
9. 과도한 인정요망	.16*	.11	.19*	.18*	.08	.16*	.14	.58***

* p<.05, ** p<.01, *** p<.001

p<.05,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r =.18, p<.05. 또한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은 전체 공격성 점수, 전체 외현적 공격성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전체 관계적 공격성과의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각각 r =.16, p<.05, r =.14, *ns*..

요약하면, 남학생 집단에서는 사회평가불안과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이 약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과 관계적 공격성의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여학생 집단의 주요변인들의 상관은 표 4에 제시하였다. 여학생 집단에서도 전체 공격성

표 4. 여학생 집단의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1	2	3	4	5	6	7	8
1 공격성								
2. 반응적외현적	.90***							
3. 주도적외현적	.83***	.75***						
4. 반응적관계적	.86***	.67***	.52***					
5. 주도적관계적	.85***	.60***	.65***	.76***				
6. 외현적	.93***	.96***	.90***	.65***	.66***			
7. 관계적	.91***	.68***	.61***	.95***	.92***	.70***		
8. 사회평가불안	.17**	.07	.07	.29***	.16*	.07	.25***	
9. 과도한 인정요망	.27***	.18**	.16*	.30***	.30***	.18**	.32***	.65***

* p<.05, ** p<.01, *** p<.001

www.kci.go.kr

과 그 하위유형의 상관은 전체 집단, 남학생 집단과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사회평가불안은 전체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과 그 하위유형들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나, 외현적 공격성과 그 하위유형과의 상관계수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전체 공격성 r =.17, p<.01, 전체 관계적 공격성 r =.25, p<.001,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r =.29, p<.001,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r =.16, p<.05, 외현적 공격성과의 상관계수 생략.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은 모든 공격성 점수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관계적 공격성과 그 하위유형들과의 상관이 더 높았다, 전체 공격성 r =.27, p<.001, 전체 외현적 공격성 r =.18, p<.01,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 r =.18, p<.01,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 r =.16, p<.05, 전체 관계적 공격성 r =.32, p<.001,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r =.30, p<.001,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r =.30, p<.001.

즉, 여학생 집단에서는 사회평가불안과 관계적 공격성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은 외현적 공격성보다 관계적 공격성과 더 높은 정도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평가불안과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중다 회귀분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전체, 남학생, 여학생 집단의 전체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사회평가불안과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이 전체 관계적 공격성에 주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전체 집단의 경우, 성별 요인을 1단계에 투입하고 외현적 공격성을 2단계에 투입해서 영향력을 통제한 뒤에, 3단계에서 두 설명변인(사회평가불안과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남학생, 여학생 집단의 분석에서는 1단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외현적 공격성을 투입해서 영향력을 통제한 뒤, 2단계에서는 두 설명변인(사회평가불안과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이 주는 추가적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전체 집단의 결과를 보면, 사회평가불안만이 약 2%의 추가적인 유의미한 정적 설명량을 보였다, β =.12, p<.01. 성별로 집단을 나누어 같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 집단에서는 두 변인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사회평가불안 β =.11, *ns.*, 과도한 인정요망 β =-.03, *ns.*. 그러나 여학생 집단에서는 사회평가불안과 과도한 인정요망이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각 β =.12, p<.05, β =.13, p<.05. 이 두 변인의 추가 설명량은 4.6%로 유의미하게 관계적 공격성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여학생 집단에서는 사회평가불안과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이 외현적 공격성의 설명량을 제외하고도 관계적 공격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관계적 공격성의 두 가지 하위유형(반응적, 주도적)에 대해 사회평가불안과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전체, 남학생, 여학생 집단에서 두 설명변인이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전체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 집단에서는 1단계에 성별, 2

www.kci.go.kr

표 5. 사회평가불안과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이 전체 관계적 공격성에 주는 영향

성별	단계	변인	R^2	ΔR^2	β	t	p
전체	1		.00	-.00			
		성별			.03	.68	.50
	2		.48	.48			
		외현적 공격성			.70***	19.3	.00
	3		.50	.02			
		사회평가불안			.12**	2.77	.00
		과도한 인정요망			.04	.98	.33
남	1		.47	.47			
		외현적 공격성			.68***	12.06	.00
	2		.48	.01			
		사회평가불안			.11	1.57	.12
		과도한 인정요망			-.03	-.37	.71
여	1		.49	.49			
		외현적 공격성			.70***	15.11	.00
	2		.53	.04			
		사회평가불안			.12*	1.98	.04
		과도한 인정요망			.13*	2.12	.03

* p<.05, ** p<.01, *** p<.001

단계에 외현적 공격성을 투입하여 영향력을 통제한 뒤 두 설명변인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남학생, 여학생 집단에서는 1단계에서 외현적 공격성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두 설명변인(사회평가불안과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을 투입해 추가적 설명량을 확인하였다.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집단에서는 성별 및 외현적 공격성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1, 2단계), 추가된 두 설명변인(3단계) 중 사회평가불안만이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력(3%)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평가불안 β =.17, p<.001, 과도한 인정요망 β =.04, *ns.*.

전체 집단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성별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여아들이 남아에 비해 관계적 공격성을 더 많이 사용하며, 발현 기제가 다른 성격을 띤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추가적으로 성별에 따른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남녀를 구분한 집단의 결과는 전체 집단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학생 집단에서의 사회평가불안의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추가적 설명량은 유의미

www.kci.go.kr

표 6. 사회평가불안과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이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에 주는 영향

성별	단계	변인	R^2	ΔR^2	β	t	p
전체	1		.00	.00			
		성별			.06	1.11	.27
	2		.42	.42			
		외현적 공격성			.65***	17.12	.00
	3		.46	.04			
		사회평가불안			.17***	3.72	.00
		과도한 인정요망			.04	.74	.46
남	1		.41	.41			
		외현적 공격성			.64***	10.79	.00
	2		.43	.02			
		사회평가불안			.12†	1.69	.09
		과도한 인정요망			.02	.21	.84
여	1		.42	.42			
		외현적 공격성			.65***	13.30	.00
	2		.48	.06			
		사회평가불안			.20**	3.33	.00
		과도한 인정요망			.06	.95	.35

† p<.10, * p<.05, ** p<.01, *** p<.001

한 경향성을 보였고, β =.12, p<.10, 여학생 집단에서의 사회평가불안이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에 주는 추가설명량(4%)은 유의미했다, β =.20, p<.01. 이런 결과는 남녀 집단 모두에서 외현적 공격성의 영향력을 제외한 이후에도, 사회평가불안이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변인일 수 있으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 더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사회평가불안 및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의 설명력을 보는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상기된 전체 및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전체 성별 집단에서는 1단계에 성별, 2단계에 외현적 공격성을 투입하여 영향력을 통제한 뒤 두 설명변인의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남녀 집단에서는 1단계에서 외현적 공격성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2단계에서는 두 설명변인의 추가적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전체 집단에서는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두 설명변인의 추가적 설명량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사회평가불안 β =.05, *ns.*, 과도한 인정요망 β =.05, *ns.*. 그러나 남녀를 구분한 집단에서는 경향성의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 집단에서는 외현

www.kci.go.kr

표 7. 사회평가불안과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이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에 주는 영향

성별	단계	변인	R^2	ΔR^2	β	t	p
전체	1		.00	-.00			
		성별			.00	.05	.96
	2		.44	.44			
		외현적 공격성			.67***	17.83	.00
	3		.45	.01			
		사회평가불안			.05	1.01	.32
		과도한 인정요망			.05	1.06	.29
남	1		.44	.44			
		외현적 공격성			.67***	11.48	.00
	2		.45	.01			
		사회평가불안			.08	1.17	.24
		과도한 인정요망			-.07	-.98	.33
여	1		.44	.44			
		외현적 공격성			.66***	13.62	.00
	2		.47	.03			
		사회평가불안			-.02	-.26	.80
		과도한 인정요망			.19**	3.08	.00

* p<.05, ** p<.01, *** p<.001

적 공격성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이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에 대해 유의미한 추가 설명량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β =.19, p<.01. 하지만 남학생 집단에서는 전체 집단과 마찬가지로 두 설명변인이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에 대해 가지는 유의미한 추가 설명량이 없었다, 사회평가불안 β =.08, *ns.*, 과도한 인정요망 β =-.07, *ns.*.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외현적 공격성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관계적 공격성과 그 하위유형에 대한 사회평가불안 및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이 주는 추가적 설명량을 확인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이 두 변인이 주로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평가불안과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은 외현적 공격성의 영향력에 더해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들이며, 사회평가불안은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을,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은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을 특정적으로 추가 설명한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사회평가불안이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만이 유의미한 경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www.kci.go.kr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의 하위유형(주도적, 반응적)에 특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심리적 변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인 사회평가불안과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호감을 사지 못하면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을 설명변인으로 설정하고, 이들 변인이 관계적 공격성의 각 하위유형인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과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에 어떻게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여학생들의 경우에 사회평가불안과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이 모두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히 사회평가불안은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에,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은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에 특정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가져, 여학생들에게서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사회평가불안이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세부적 결과를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사회평가불안이 관계적, 특히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타인의 부정적 평가를 예상하는 것이 포함된 사회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방어하려는 방식으로 관계적 공격성을 표출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관계를 손상시키려는 자극을 주는 상황일 때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적대적 귀인 편파(즉, 타인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관계를 손상시키는 식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의 수준이 더 높은 경우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에 더 영향을 준다는 결과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Bailey & Ostrov, 2008; Yeung & Leadbeater, 2007). 또한, Marsee 등(2008)의 연구에서 불안이 사회적 염려를 매개하여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도 부합하는 내용이다. 이는 사회평가불안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들(Loudin et al., 2003; Loukas et al., 2005)에 더해 보다 구체적으로 반응적 형태의 관계적 공격성에 관련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 부정적으로 자신을 보거나 평가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관계적 공격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이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에 주는 영향과 관련된 본 연구의 결과는, 여자청소년의 경우에, 과도한 인정욕구가 관계적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인정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회적 대가를 치르는 좌절자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인 것과 관련이 있다(Larsen et al., 1976). 또한 이 결과는 주도적 반응적 공격성이 반응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이기보다는 집단 내에서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으로 공격성을 사용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이 성별에 따라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는 경향성은 흥미롭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공격 행동을 할 때 자신의 성별 또래집단에서 더 가치있다고 여겨지는 상

www.kci.go.kr

대의 목표(즉, 여아는 사회적 관계, 남아는 도구적 우위)에 대해 해하는 행동을 한다는 Crick과 Grotpeter(1995)의 연구와 상통한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남아들이 도구적인 우위나 위계적으로 지배적인 위치를 가지려는 것이 또래집단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 신체적, 언어적 싸움에 더 가치를 두는 반면, 여아의 경우 사회적 관계 내에서 매우 친밀한 관계를 보이며 이런 부분이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이들의 공격적 행동은 관계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또한 Phillipsen 등(1999)의 연구에서 아동이 성별에 따른 규범적 공격행동을 지지하며 비규범적 공격행동은 배척한다는 결과나, Campbell과 Muncer(2008)의 연구에서 남성이 폭발적인 분노표현을 많이 하고, 여성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분노표현을 더 많이 한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런 경향성의 원인은 생물학적인 차이나 혹은 사춘기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규정지어지는 성 역할 등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Connor, 2004; Cryanowski, Frank, Young, & Shear, 2000), 주로 여아들이 남아보다 대인관계에서 보다 가까운 정서적 소통, 친밀감, 반응성 등을 더 선호하는 면이 영향을 주는 것일 수 있다(Feingold, 1994). 즉, 여아 집단에서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주요한 사회적 목표이기 때문에, 관계적 공격성은 자신이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의 친밀한 관계를 해하는 방식이 상대에게 더 타격을 주므로 효과적인 공격 유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남아집단의 경우 여아집단에 비해 친밀한 관계가 보다 더 주요한 사회적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관계를 이용해 공격하는 방식을 덜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상의 결과를 통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우선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는 여학생에 대한 개입 혹은 중재 프로그램에서는 사회평가불안이나 과도한 인정욕구 등의 인지적인 면을 다룰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된다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에도 사회평가불안은 관계적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성이 나타나므로 공격적인 청소년들에 개입할 때, 사회평가불안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해소하며, 인정 욕구를 더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평가불안에 대한 개입으로는 타인의 부정적 평가의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이로 인해 예상되는 파국적인 결과에 대해 현실적으로 재검토하는 것, 비판의 대상이 되는 부정적인 면을 자신의 특징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등의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도한 인정 욕구에 대한 개입에는, 자신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바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평가불안 및 과도한 인정 욕구 모두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얽매인 태도, 생각으로 인한 현상이므로, 청소년이 주변의 반응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주관과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과도한 경쟁 속에서도 건설적인 자신의 목표나 신념을 확립하도록 돕는 과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모든 질문지가 청소년의 자기보고 형식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특히 공격성에 대한 또래-지명과 같은 방식의 질문지나 관찰 등의 방법을 이용한 다각도의 측정이 필요하다. 둘째, 종단연구가 아닌 한

www.kci.go.kr

시점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인과관계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셋째, 본 연구는 일반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실시되어 보다 높은 공격성을 가지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같은 결과를 도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에서 보호감호소나 관련 시설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지현, 박경자 (2006).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아동학회지, 27(3), 149-168.

박민정, 최보가 (2004).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95-104.

양주경 (2007).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 기제: 행동억제기질, 가족 환경, 역기능적 신념, 불안통제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명신 (2000). 청소년의 집단따돌림의도 결정과정 모델. 한국아동복지학, 9, 177-203.

이정윤, 최정훈 (1997).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K-SAD, K-FNE)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251-264.

이진솔 (2007).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여중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춘재, 곽금주 (2000).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실태와 특성. 서울: 집문당.

조용래, 원호택 (1999). 사회공포증에 대한 인지적 평가 Ⅲ: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41-162.

최은숙, 채준호 (2000).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경향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관한 일 연구. 인간이해, 21, 109-137.

홍세희, 조용래 (2006). 역기능적 신념검사 단축판의 구성: Rasch 평정척도모형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3),** 865-880.

Bailey, C. A., & Ostrov, J. M. (2008). Differentiating forms and functions of aggression in emerging adults: Associations with the hostile attribution biases and normative belief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 713-722.

Cairns, R. B., Cairns, B. D., Neckerman, H. J., Ferguson, L. L., & Gariepy, J. L. (1989). Growth and Aggression. 1.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5 (2),* 320-330.

Campbell, A., & Muncer, S. (2008). Intent to harm of injure? Gender and the expression of anger. *Aggressive Behavior, 34,* 282-293.

Connor, D. F. (2004).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research and treatment.* NY: The Guilford Press.

Crick, N. R. (1995). Relational aggression-The role of intent attributions, feelings of distress, and provocation typ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2),* 313-322.

Crick, N. R. (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2317-2327.

Crick, N. R., & Bigbee, M. A. (1998). Relational and overt forms of peer victimization: A

www.kci.go.kr

multiinformant approa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337-347.

Crick, N. R., Casas, J. F., & Nelson, D. A. (2002). Toward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peer maltreatment: Studies of relational victimizat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1(3),* 98-101.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Crick, N. R., Grotpeter, J. K., & Bigbee, M. A. (2002). Relationally and physically aggressive children's intent attributions and feelings of distress for relational and instrumental peer provocations. *Child Development, 73(4),* 1134-1142.

Crick, N. R., & Nelson, D. A. (2002). Relational and physical victimization within friendships: Nobody told me there'd be friends like thes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6),* 599-607.

Cryanowski, J. M., Frank, E., Young, E., & Shear, K. (2000). Adolescent onset of the gender difference in lifetime rates of major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7,* 21-27.

Dodge, K. A., & Coie, J. D. (1987). Social-information-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6),* 1146-1158.

Feingold. (1994). Gender differences in personality: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429 -456.

Frodi, A., Macaulay, J., & Thome, P. R. (1977). Are women always less aggressive than men-Review of experimental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4(4),* 634-660.

Kashdan, T. B., & Herbert, J. D. (2001). Social anxiety disorder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4(1),* 37-61.

Larsen, K. S., Martin, H. J., Ettinger, R. H., & Nelson, J. (1976). Approval seeking, social cost, and aggression: A scale and some dynamics. *The Journal of Psychology, 94,* 3-11.

Leary, M. R. (1983a). A brief version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9,* 371-375.

Little, T. D., Henrich, C. C., Jones, S. M., & Hawley, P. H. (2003). Disentangling the "whys" from the "whats" of aggressive behaviou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2),* 122-133.

Loeber, R. (1982). The stability of antisocial and delinquent child behavior: A review. *Child Development, 53,* 1431-1446.

Loudin, J. L., Loukas, A., & Robinson, S. (2003). Relational aggression in college students: Examining the roles of social anxiety and empathy. *Aggressive Behavior, 29(5),* 430-439.

Loukas, A., Paulos, S. K., & Robinson, S. (2005). Early adolescent social and overt aggression: Examining the roles of social anxiety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4),* 335-345.

Marsee, M. A., Barry, C. T., Frick, P. J., Kimonis, E. R., Munoz, L. C., & Aucoin, K. J. (2007). *Assessing aggression in at-risk youth using the Peer Conflict Scale: Confirmatory factor*

www.kci.go.kr

analysis and evaluation of factorial invariance across gender.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uth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Marsee, M. A., & Frick, P. J. (2007). Exploring the cognitive and emotional correlates to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a sample of detained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6),* 969-981.

Marsee, M. A., Kimonis, E. R., & Frick, P. J. (2004). *Peer conflict scale.* Unpublished rating scale. University of New Orleans.

Marsee, M. A., Weems, C. F., & Taylor, L. K. (2008). Exploring the association between aggression and anxiety in youth: A look at aggressive subtypes, gender, and social cogni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7,* 154-168.

Olweus, D. (1979). Stability of aggressive reaction patterns in males: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6,* 852-875.

Ostrov, J. M., & Crick, N. R. (2006). How recent developments in the study of relational aggression and close relationships in early childhood advance the field.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189-192.

Ostrov, J. M., & Keating, C. F. (2004). Gender differences in preschool aggression during free play and structured interactions: An Observational study. *Social Development, 13(2),* 255-277.

Owens, L., Slee, P., & Shute, R. (2000). 'It hurts a hell of a lot...'-The effects of indirect aggression on teenage girl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1(4),* 359-376.

Phillipsen, L. C., Deptula, D. P., & Cohen, R. (1999). Relating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their friends to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Child Study Journal, 29(4),* 269-290.

Scheithauer, H., Hayer, T., Peterman, F., & Jugert, G. (2006). Physical, verbal, and relational forms of bullying among German students: Age trends, gender differences, and correlates. *Aggressive Behavior, 32,* 261-275.

Vaillancourt, T., Brendgen, M., Boivin, M., & Tremblay, R. E. (2003). A longitudinal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indirect and physical aggression: Evidence of two factors over time? *Child Development, 74(1),* 1628-1638.

Werner, N. E., & Hill, L. G. (2010). Individual and Peer Group Normative Beliefs About Relational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81(3),* 826-836.

Wolke, D., Woods, S., Bloomfield, L., & Karstadt, L. (2000). The association between direct and relational bullying and behaviour problems among prim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1(8):* 989-1002.

Yeung, R. S., & Leadbeater, B. J. (2007). Does hostile attributional bias for relational provocations mediate the short-term association between relational victimization and aggression in pre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 973-983.

원고접수일 : 2011. 9. 28.
게재결정일 : 2011. 11. 8.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1, Vol. 30, No. 4, 985-1002

Relationships among Social Evaluative Anxiety, Excessive Demand for Others' Approval, and The Subtypes of Relational Aggression in Early Adolescence

Young Kyeung Han
Department of Psychiatry
Asan Medical Center

Eun Jung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psychological variables and the subtypes(i.e., reactive, proactive) of relational aggression in early adolescenc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among 410 middle school students were performed to examine the unique contributions of social evaluative anxiety and excessive demand for others' approval to the subtypes of relational aggression. The results showed that, among girls, social evaluative anxiety was uniquely positively associated with reactive relational aggression and excessive demand for others' approval with proactive relational aggression. Among boys, social evaluative anxiety was marginally associated with reactive relational aggression, and excessive demand for others' approval showed no significant association. The overall results suggest that each subtype of relational aggression has differential specific features and the mechanism for relational aggression exhibits gender difference.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and the directions of future intervention programs for aggressive youths are suggested.

Key words :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reactive relational aggression, proactive relational aggression, social evaluative anxiety, excessive demand for others' approval

www.kci.go.kr